

보도시점

2023. 11. 9.(목) 13:00

배포

2023. 11. 9.(목) 13:00

농어촌공사, 녹조라떼 막는 녹조청소로봇 선보여

- ‘2023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사회문제해결형 R&D 우수기술로 전시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11.9~11.12)」에 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이 개발한 ‘녹조청소로봇’(인공지능 무인자율이동 조류포집장치)이 사회문제형 국가 R&D 우수기술로 전시된다고 밝혔다.

‘녹조청소로봇’은 농업용 호소 수변에 몰려있는 녹조를 흡입·처리하는 장치로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인력투입 없이 스스로 녹조 감시·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컴팩트한 구조로 제작·개발되어 저수지 간 이동이 용이하며 수변 수심이 낮은 곳의 접근성과 수초대 녹조 제거 성능이 우수하다.

해당 기술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실증한 연구로 (주)삼호인넷, (주)코레드, (주)이엔이티와 공동 연구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기술 시연회 등을 통해 녹조 제거에 있어 현장 인력투입 한계 극복, 관제 시스템을 통한 용이한 점검·관리 등 기존 녹조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회에서 선정한 사회문제해결형 국가 R&D 우수 성과로 선정되었다.

서상기 농어촌연구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어촌연구원	책임자	부 장	이규상 (031-400-1647)
	미래농어촌연구소	담당자	차 장	남귀숙 (031-400-1861)